**강신주의 감정수업**

**음주욕**

"이야기된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라는 이성복 시인의 말이 옳다면, 유진 오닐의 작품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절절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호의**

우리는 분명 자신의 뒤틀린 부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그 뒤틀림이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아픔이나 고뇌를 자기 내면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여기 들어온 거야. 여기 있는 한 우리는 남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남에게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뒤틀림’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런 점에서 외부 세계와 이곳은 완전히 달라. 외부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뒤틀렸음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세계에서는 뒤틀림이야말로 존재의 조건이야. 인디언이 머리에 자기 부족을 상징하는 깃털을 꽂듯이 우리는 뒤틀림을 끌어안고 있어.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사는 거야.

**환희**

현대 문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카프카만큼 여리고 우유부단한 작가가 또 있을까?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지만, 카프카는 그런 의지를 관철시키기에는 너무나 나약했다.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원치 않던 변호사가 된 것도 모두 아버지로부터 그나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던 셈이다. 원하는 것을 해 주면 작게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라도 생길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은 대부분 결별을 스스로 선언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결별을 요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나약함을 드러낸다. 언제 올지 모를 결별 선언을 기다리며 우울함을 감내하는 카프카 주인공들의 모습은 그래서 측은하기까지 하다.

**영광**

권력이나 자본이 항상 상벌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영광을 추구하고 치욕을 멀리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권력과 자본은 유년시절부터 몸서리쳐지는 치욕의 경험을 선사해서 우리에게 치욕을 겪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심을 각인시켰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권력과 자본은 진정한 영광의 자리를 오직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았다. 권력의 해묵은 공식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소수는 반드시 다수를 깨알처럼 분리시키고 분열시켜야만 한다.** 어쨌든 지나치게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꺼이 고독을 감내해야만 한다.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과 유대의 가치를 망각하고 타인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유대와 사랑을 원하는가? 공존과 공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영광을 멀리하고 치욕을 기꺼이 감내할 일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분노**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의 도움으로 나중에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라. 네 생각은 어때,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에서 구하는 거지. 하나의 죽음과 백 개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대수학이지 뭐야! 게다가 저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폐병쟁이에 멍청하고 못된 노파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이나 바퀴벌레의 목숨, 아니, 그만도 못 한 목숨이야. 남의 목숨을 좀먹고 있거든. 얼마 전에도 홧김에 리 자베타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하마터면 손가락이 잘려 나갈 뻔 했지!"

라스콜리니코프의 개인적인 원한을 공적인 분노로 승화시키기에 나름 설득력 있는 논리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사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수치심으로 눈이 멀어 있었을 뿐이다. 전당포 노파도, 라스콜리니코프 본인도 **모두 자본주의의 희생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그는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도록 구조화된 사회를 말한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보다 월등한 지위를 얻을 수밖에 없다. 돈을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돈의 양만큼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만, 돈이 없는 자에게는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든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들린 것이다. 그리고 그곳 주인인 노파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 두 사람 모두 같은 처지 아닌가. 라스콜리니코프도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간 것이고, 노파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전당포를 차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젊은이와 노파 두 사람은 모두 돈이 소중한 것 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금반지를 저당 잡히려고 했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그것이 얼마의 돈으로 바뀔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어쩌면 전당포 노파가 그 금반지를 대가로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을 내주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금반지는 금의 시세 가격에 소중한 추억이라는 주관적 가격이 합쳐진 것이었다. 그러나 소중한 추억 따위가 노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파는 단지 금의 시세 가격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느낀 모멸감은 사실 전당포 노파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가 느낀 수치심의 진정한 원인은 소중한 추억이라는 주관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자본주의 근성,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부여한 가치를 탐욕스러운 노파에게 철저히 부정되었다는 자괴감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직 여리기만 한 그가 수치심의 진정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내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니 라스콜리니 코프는 전당포 노파에게 모든 악을 되돌려 버렸던 것이다.

『죄와 벌』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느 청년의 분노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소냐라는 창녀를 만나면서, 불행한 청년 로쟈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분노는 타당한 것이었지만, 자신에게는 한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의 분노는 강한 죄의식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하지만 너무 때늦은 반성, 혹은 너무 무기력한 반성 아닌가. 불행한 청년은 끝내 자신도 혹은 전당잡이 노파도 모두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사회 구조 의 희생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 이르지는 못한다. 라스폴리 니코프가 지혜로웠다면, 그는 자신이나 노파를 모두 돈의 노예로 만든 자본주의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을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몰랐던 것이다. **전당포 노파를 죽여도 다시 누군가가 또 전당포를 차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소중한 추억이 녹아 있는 물건을 들고 또 누군가는 다시 전당포 앞을 서성거릴 것이라는 현실을. 어쩌면 바로 이 점이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의 가능성이자 한계일지도 모른다. 체제에 돌려야 할 분노를 인간에게 돌리고는 전전긍긍하는 개인, 그래서 한없이 자본주의의 냉혹함에 무기력해지는 인간. 더 냉정하게 자본주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를 전당포 노파에게 혹은 자신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이자 도스토예프스키의 한계였던 것이다. **그래서 『죄와 벌』 만큼 19세기 문학이 가진 한계를 이처럼 비극적이고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소설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19세기를 넘어서는 데 성공한 것일까? 모를 일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주로 자본주의 문턱에서 과도기를 겪는 러시아 사회의 모순과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다루었는데, 특히 『죄와 벌』(1866)은 작가 스스로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보고서"라고 밝혔듯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고뇌하는 청년의 대명사를 창조하여 죄와 속죄를 둘러싼 다양한 인식들을 탐구했다. 주인공 로쟈는 자신의 논문에서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하급 부류(평범한 사람들), 오로지 자신과 비슷한 자들을 생산하는 데만 기여하는, 말하자면 재료이며,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 첫 번째 부류, 즉 재료는, 대체적으로 말해 그 본성상 보수적이고 점잖은 데다가 순종하며 살고 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그렇다고 해서 굴욕감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전부 법률을 넘어서는 자들, 그 능력에 따라 파괴자이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범죄는 물론 상대적이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들은 극히 다양한 성명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것 의 이름으로 현재의 것을 파괴하길 요구합니다. (...) 첫 번째 부류는 항상 현재의 주인이며, 두 번째 부류는 미래의 주인입니다. 전자는 세계를 보존하고 수적으로 증대시킵니다. 후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이끌고 나갑니다.”

**다수의 약자를 통제하려면, 소수의 강자가 명심해야 할 철칙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약자에게 해악을 가할 때 같은 약자가 보는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신도 언제든지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자기처럼 해악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자각은 극심한 분노와 아울러 조직적인 저항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일까. 권위적인 조직에서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과 유대감을 극히 꺼린다. 반대로 우리가 학생회 아니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약자들이 연대하는 조직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타자들이 어떤 해악을 입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해악을 막기 위해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우리라는 의식이 없다면, 해악을 끼치는 강자에 대한 분노도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롱**

놀라운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지행합일이 되어 있고, 이론과 실천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은 고양이 선생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존경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행합일도 되지 않았으면서 인간은 지행합일이 이루어진 동물들을 열등하다고 조롱하며, 심지어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뻐기고 있다. 정말 웃기는 일 아닌가.

배가 고프면 늑대는 닭을 잡아먹는다. 지행합일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을 아는 순간, 동물들은 무엇인가를 먹는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떤가? 배가 고픈 것을 알아도 생명 존중이든 다이어트이든 간에 어떤 괴상한 이유를 들어 번뇌하면서 음식을 바로 먹으려고 들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먹지 않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먹는다는 점이다. 얼마나 쿨하지 못한가. 고양이 선생의 눈에는 인간의 행태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닭처럼 살아 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몸서리를 치지만, 배가 고프면 어김없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통닭집에 들어가 닭을 뼈까지 발라 먹는 인간이. 심지어 이렇게 닭으로 배를 채운 뒤, 포만감에 트림을 하면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인간들은 침을 튀기며 생명 존중을 역설하곤 한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인가.

고양이의 눈에 비친 인간은 너무나 가식적이고 복잡하다. 고양이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후회**

‘후회’라는 감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후회에는 모든 불운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정신적 태도, 다시 말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의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영민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점을 간과할 리 없다.

후회(poenitentia)란 우리가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 어떤 행위에 대한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 <에티카>에서

‘후회’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어야만 한다. **자신이 모든 불행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불운을 자기가 초래한 것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은 선택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믿는 것만큼 거대한 착각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오만이 또 있을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면 모든 불행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쉽다.

**스피노자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후회라는 슬픈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행위가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후회라는 슬픈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한 번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여간해서 이 감정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끌림**

**그녀의 감정이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연적인 조건과는 무관하게, 그와 함께 있으므로 인해 기쁨을 느껴야만 한다. 그렇지만 지금 소녀는 자신의 감정이 우연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처럼 집안 사정이 그토록 남루하지 않았다면, 소녀는 결코 나이 많은 중국 남자에게 끌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그것 없이는 자신이 제대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연인 것이다.**

**치욕**

'역린'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고전 『한비자』에 등장하는 개념인데, '거꾸로 된 비늘'이라는 뜻이다. 용의 머리 뒤편에는 다른 비늘 방향과 반대로 되어 있는 비늘이 모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용을 탄 사람이 잘못해서 그 부분을 만지게 되면, 용은 화를 내며 고개를 돌려 자기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을 물어 죽인다. 한비자가 용의 거꾸로 된 비늘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마다 '역린'이 있으니,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것이다.

**겁**

흥미로운 일이다. **강한 자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약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 철학자 니체의 지적이 옳기는 한가 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자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강자는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때문에,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반면 약자는 너무나 생각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약자에게는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다.

**소심함**

어쩌면 사강이 폴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사랑이란 용기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진실 아니었을까? 50대 나이에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사강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기 파괴의 위험을 감당하며 사랑의 모험에 과감히 뛰어들지 않으면, 순간적으로는 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편리한 안일함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겁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결국 아주 천천히 우리 삶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괴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강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타자로의 맹목적인 비약에 어떻게 위험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매너리즘에 빠진 자신의 삶과 단절하여 마치 천 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을 건너뛰려는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꿀맛을 맛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쾌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옳지만, 정신은 그릇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스피노자가 “우리는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이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느 때 불행을 느끼는지 계속 응시해야만 한다. **아무리 정신으로 "이럴 때 자신은 틀림없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해도 직접 몸으로 겪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슬픔**

부와 사랑, 둘 중 어느 것이 기쁨을 주고 어느 것이 슬픔을 주는지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자본주의 자체가 바로 슬픔의 기원이라는 통찰일 테니까 말이다. 자본주의는 항상 자신의 위엄을 위해 우리를 생계 불안 속으로 던져 넣는다. 오직 그럴 때에만 자본은 우리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약하고 여린 우리가 비극을 만드는 이 거대한 룰렛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치심**

이 노숙자 들은 서울역을 지나다니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는 아랑곳없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는 일도 별로 없다. 그래서 간혹 노숙자는 강시 혹은 좀비처럼 보이기도 한다.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영혼과 감정은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숙자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마비된 존재다. 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자존심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자존심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긴, 자존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노숙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마비' 상태가 편리한 법이다.

어떻게 해야 노숙자를 하나의 인격자로서 깨울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순간에 노숙자가 자존심을 가진 인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망자>에서 조이스는 마비, 즉 진짜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감정에 주목한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다. 수치심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를 읽어 보면, 수치심이 어떻게 마비로부터 깨어나는 계 기가 될 수 있는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치욕(pudor)이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행위에 수반되는 슬픔이다. 반면 수치심(verecundia)이란 치욕에 대한 공포나 소심함이고 추한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인간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수치심은 앞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이나 소심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치욕과 수치심을 구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치욕은 슬픈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그런 슬픈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하려는 원동력이니까. 그러니까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치욕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 게는 치욕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법이니까.

수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 받을 짓을 애초에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행동 또한 강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의 정신과 감정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마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수치심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